

종을 보고 친구라니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개역, 요한복음 15:9~17]

출세한 고향 친구

경 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경원대학교라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 대학의 학장 되시는 분이 예전에 포항에서 연주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주회에 갔다가 좀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전세 버스를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포항 시내에 계신 분도 그런 음악회에 잘 가지 않는데 웬 시골 사람들이 전세버스로 왔나 싶어 가만 생각해보니 그 분의 고향이 이곳 시골 영덕인데 읍내도 아니고 복사꽃 많이 핀 그곳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던 분이 무엇 하러 전세 버스를 타고 이곳 연주회까지 왔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이 포항에 연주하러 가니 고향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봐야죠.

음악가라는 삶은 좀 화려한 편이죠. 외국 유학도 다녀와야 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분이 고향 가까이 오게 되면 고향에서 농사짓고 힘들게 사는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고 친구로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음악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웬지 모르게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면서도 아마 ‘서울 가면 나도 이런 친구 있다’는 자부심이나 감격을 누리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어설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시골 사람들을 깔보거나 폄대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불고 있네!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친구가 서울에 있단 말이야!’ 하는 자부심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원래 그 분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웬지 더 끌리더라고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도무지 상종할 수 없을 만큼 출세했으면서도 고향에 있는 보잘 것 없는 나를 잊지 않고 친구로 대해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겐 있나요?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고 이제부터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하셨는데 웬만한 일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이런 훌륭한 친구를 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희 동기 중에 그렇게 출세한 인물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출세해서 서울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우연찮게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를 서울에서 만나고 내려와서는 동기회에서 말하기를 “개는 이제 우리 친구 아니더라! 얘기하는 것이 달라서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더라. 잠깐 만났는데 전화가 국제청장한테서 오고 무슨 장관한테서도 오는데 거기 앉아서 친구란 소리 못하겠더라!” 그런데도 그 친구가 자기를 친구로 대접해준 것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 못하겠더라’ 하지만 사실은 기분이 좋았다는 뜻이고 어디 나가서는 좋은 친구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리 쉽게 좌절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이냐?’고 자기를 비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친구가 아닌데...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종보다 못할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친구는 좀 비슷해야 친구가 됩니다. 가끔씩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가 학교에 불러오면 하는 말이 “선생님, 원래 우리 아이는 이렇게 나쁜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찌다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자면 왜 친구를 잘못 만나나요? 잘못된 친구와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으니까 그런 친구를 만났고 같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원래 친구는 비슷한 모습이 있어야 친구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고 급수가 다르면 친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친구는, 급수가 너무 달라서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들을 ‘너희가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빌레몬서를 들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은 잡히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바울의 심복이 된 후에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빌레몬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을 영접하고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형제로 대우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갈 때의 마음과 바울의 편지 한통을 들고 돌아갔을 때 그 주인이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었을 때의 그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에게 돌아오는 오네시모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무엇이랴 하면서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휴, 재수 없게!”라고 했을 것을 오네시모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에 온갖 웃음을 띠면서 일어났을 거예요.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아니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친구로 받아주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친구로 삼을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친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 이틀 믿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도무지 친구로 삼을 수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의 친구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냐 할 때 돈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분이 내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쉽게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부가 잘 안된다고요? 공부를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공부 참 잘하겠단’ 그런 어려운 말을 왜 그리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가 잘 안 되고 좀 불편한 것이 많이 있고 사람이 좀 못났다 싶어도 우리에게 이런 놀랍고 위대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렇게 쉽게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급수로 뛰어오르긴 어렵습니다. 종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려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려두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뜻으로 ‘바로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사이십니까? 친구 맞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시니 친구가 맞긴 맞는데 그러나 별로 친밀하진 못한 모양이죠. 겨우 안면만

있는 정도의 친구가 되시나요? 종은 주인에게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삽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하는 행동이 몇 십 년 전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 사이란 늘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나요? 아니면 이런 친밀감을 느끼고 사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면 겁나나요? 예수님은 친구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종노릇 하며 살려 할까요?

어떻게 이런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하나요?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명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12절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17절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이란 표현을 씁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과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많이 맺으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데 어느 것이 제일 쉽나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어느 것이 제일 쉬운 것 같나요? '하나도 어려운데 도대체 몇 개야?' 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러 말씀은 전부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분명히 같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이 데려오는 것이란 생각이 들죠? 그것도 예수 믿는 열매고 좋은 과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 라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의 과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 중간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된다는 말을 전부 하나로 종합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너희를 내 친구로 삼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못할 친구 - 나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친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잊지 못할 친구가 더러 있지요? 어떤 친구가 잊지 못할 친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옛날에 학비로 쓰려고 아르바이트 해서 모아놓은 돈을 조금만 빌려 달라 해놓고 영원히 갚지 않는 친구더라고요. 미운 것은 아닌데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자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와준 친구가 잘 안 잊혀져요. 예수님은 조금 도와준 친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신 친구입니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몇 해 전인가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은 한국 청년 있지요. 그때 살아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나를 위해서 한국에서 유학 온 젊은 청년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구해줬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참 궁금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인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수로 죽으셨나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 죽을 곳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번 유월절에 죽으셔야 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리는데도 가신다니 도마가 용감하게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말하고 따라 내려옵니다. 죽을 줄 알

고 죽을 길로 가셨습니다. 죽을 장소에 오셔서, 예수님께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하지만, 죽으려고 약을 씹니다. 성전에 매일같이 가서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엮기도 하였고 거기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죽으려고요. 제사장들이 이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뒷감당을 못하게 되니 죽이지 않으려 했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죽어야겠다고 약을 쓰신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지 알고 계셨음에도 '유다야! 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체포 되어서 그날 밤에 재판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하면 대답을 않으셔도 되는데 꼭 불리한 답변만 하십니다. 자신에게 덕이 될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죽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틀어버리셨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친구로 삼을 수 없는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본문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 분의 친구가 될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가 우리의 친구라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은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친구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잊지 못할 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은 끊어졌습니까만 그 친구와 처음 사귄 때, 많은 사람과 친분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친구가 많으냐?'라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은 많지요' 하고 답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생각이 깊은 좋은 친구를 하나를 얻었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리 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몇 해 되었습니다만 한보 정회장이 재판을 받을 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회사의 재정관계자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모두 머슴 아니요. 머슴이 무엇을 압니까? 주인인 내가 알고 내 말이 맞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슴이나 종은 주인의 속을 모르지만 그 속을 다 아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분을 잘 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모양이라도 내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도무지 친구라 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친구로 삼고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을까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로선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철이 들 무렵에 듣고 참 놀랐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 중의 하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야 하는데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부모님이 다정다감하신 말씀이라곤 할 줄을 모릅니다. 집에서 좋은 말 별로 못들은 것 같아요. 위로 나를 챙겨줄 만한 형님도 없었고 누나도 일찍이 나가 살았기 때문에 별로 받아보지 못한 것 같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오빠 소리를 못 들어 봤어요. 하다못해 친척 중에도 여동생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여동생이 따라왔다가 자기 오빠 친구니까 날 보고도 '오빠' 했는데 한 한달쯤 봉 떠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결혼하고도 그 생각이 나서 집사람 보고 '오빠' 해 보라고 했더니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끝내 안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자랐으니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고 어렵게 자랐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내가 앞으로 커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인데 그것을 못한다면 신앙인으로 살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고민하며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별 고민 다 했다 싶었지만 제겐 매우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더군요. 그렇게 되고난 다음 다시 뒤를 돌아보니 그래도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사는 그때부터 내 형제,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꿈하고 한번 빠치면 오래잡니다. 남이 한마디 굶어놓으면 잘못 잊어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참 좋지 못한 성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별로 싸우지 않고 별 문제없이 잘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옆의 잘난 형제 말고, 나에게 잘 해 주고 나와 죽이 잘 맞는 형제 말고, 좀 안 보고 살 수 없나 싶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죽 친구가 없으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나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스스로 겪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속에 참 기쁨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my pleasur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만에'라는 표현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답변입니다. '천만에'보다 그대로 직역해서 '당신을 그렇게 돕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예수님 속에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길게 잡아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고민도 되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다가 강도사로 세워놓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고 미안한 것 딱 한 가지가 남의 기쁨을 빼앗아 간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와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새벽기도 인도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하셨답니다. "하라고 하면 다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설교 마치고 '설교 준비하느라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힘들지만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고 백 강도사도 오니 세 분이 동시에 비우는 일이 없어서 한 번씩 설교해야 하는 분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버린 것 같아 많이 미안합니다.

새벽기도 설교 부탁해 놓으면 미리 나오셔서 마이크 켜놓고 예행연습까지 하셨던 분도 계셨더군요. 정말 기쁨이지요. 교회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이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 전하셨고 예수님 속에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꼭 교회 가서 설교하는 그것만 기쁨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이런 기쁨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참된 기쁨은 항상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괴로움과 함께 옵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기쁨만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마약에 취해 있는 경우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자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나고 물어봤더니 제가 기대한 답과는 조금 다른 답이 나왔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인가요? 고통인가요? 기쁨도 되고 고통도 되는 것이지요. 그 큰 기쁨이 고통을 수반하고 따라 오는데 그 속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라고 합니다. 고난을 어찌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대해 투자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개를 왜 그렇게 좋아 하느냐? 제 생각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짐승에게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며칠 전에 딸과 함께 가다가 강아지가 예쁘다고 야단스러워 하길래 “은영아! 강아지가 예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예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와 강도사하고 비슷합니다만 강아지가 예뻐요? 강도사가 예뻐요? 집에 있는 그렇게 예쁜 강아지와 지금 옆에 계신 성도 중에서 사람이 예뻐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사랑이 있으면 강아지에게 나누어 줘야죠.

예수님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고 목숨까지 버리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고 동시에 예수님 속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잡히시기 전날 그 며칠 사이에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제자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야 할 이 시점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언을 두 번 하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유언은 승천하실 때 하신 두 번째 유언입니다. 첫 번째 유언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 이것을 첫 번째 유언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유언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혹시 사는 것이 싫고 사람이 미워지고 자신이 미워질 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들어 있는 이 긴 본문을 요약해서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다른 아무 일을 해도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을 전하는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의 설교 주제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평생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그렇게 예뻐던 남편도 아내도 싫어질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마저 싫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친구가 아닌 자를 친구라 하면서 목숨까지 다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술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흉내낼 때 우리 속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